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희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공동의 집

를 나누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집'으로 여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는 대안공간을 6년째 운영하고 있고 올해의 프로젝트를 '공동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시는 각자의 계기로 이주한 세 명의 작가들을 섭외해 진행했다. 이들은 자연과 인간의 '경계 흐림'을 실천하며 물리적으로도 비물질적으로도 속도감이 빠른 도시에서 벗어나 제주라는 섬이 자아내는 속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해 생태, 생명, 신체, 관계에 대해 깨달아가는 과정을 시각 언어로 발화하며 '존재론적' 연결성을 작품에 녹여냈다. 제주에는 수 많은 이주민이 존재하지만 특히,

예술 작품은 인간의 삶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해왔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시각 예술가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또한, 그들의 작업이 미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거대 담론과 연관 짓지 않아도 인간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깨달을 때, 위안을 얻고자 할 때, 인생에서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자 할 때 자연에 의지한다. 인류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시대지만,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비난하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인식을 통해 복잡한 얽힘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을 경험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형상도 볼 수 있

고, 개방되고 혼성되어 비인간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삶도 그려볼 수 있다.

이러한 관념은 비단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지역, 작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공간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세계를 펼칠 수 있고, 다양한 영역의 종사자들이 오가며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소이자, 담론의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며 공동체 의식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의 집'으로서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반포한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Omnia coniunguntur.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설

경기침체로 열악한 지방재정 더 악화되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뜰이나 열악한 제주도 재정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침체가 전방위적으로 미치고 있다. 고급리와 고물가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 징수 실적도 시원치 않으면서 제주도정 살림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다.

제주도가 공개한 '2024년 5월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7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7949억원)보다 283억원(3.6%)이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 5월까지 징수한 취득세는 19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33억원)보다 5억원 가량 적다. 하지만 2022년 같은 달(2464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36억원(21.8%)의 큰 차이가 난다. 또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지방소비세도 2022년 5월 3053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76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302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잖아도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된다. 국제 수입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도 줄어들어서다. 장기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은데다 소비 부진 탓이다.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좌우하는 내국세는 올해 5월 누적 기준 136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조9000억원)보다 9조원 가량이나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비 지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린마당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해



김혜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걸쳐 조사된다. 1월 1일에는 국제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등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 전부를 조사한다. 반면에, 7월 1일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분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 또한 이 시기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아쉬운 발걸음을 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공시지가상황실(064-760-2142~2146)로 전화하면 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가 시작됐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후 결정·공시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조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 년에 두 번,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청정 농축수산물 가치 제고·판로 확대 '공감'

도·대기업·정부기관 맞손

"화요일엔 출근길 버스 소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 우수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식품 대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과 맞손.

도는 9일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대상(주),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지역 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제주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과 대기업의 역량, 정부기관의 지원이 만나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김원근 제주시장이 '화요일출근 버스'란 이름으로 매일 주 화요일 버스로 출근하는 날을 정해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

첫 '화요일출근버스'가 운영된 9일에는 오전 7시 30분 조천우체국 버스 정류장에서 341번 버스에 올라 시민들과 인사하며 대화를 진행.

김 시장은 "화요일출근버스는 시민들의 생각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들으며 시정 정책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소통의 방식"이라며 "형식과 틀에 얽매지보다는 시민의 일터와 삶터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버스 안에서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 대중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도 청취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정서위기 학생들 위한 '병원형 위(Wee)센터'

제주지역에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 학생들에게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병원형 위(Wee)센터'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2024년 정서위기학생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Wee)센터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할 목표로 설립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 센터를 꾸리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Wee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학교 부처를 학생과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단위학교에서 제공되는 위클래스,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위센터로 나뉘는 상담 제공은 물론 전문 진단

및 심층 심리검사, 치료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병원형 위(Wee)센터는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3차 안점망의 역할인 셈이다. 고위험 학생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과 평가, 맞춤형 전문의 치료, 필요 시 입원 치료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치료 후 원활한 학교 복귀와 적응을 목표로 한다.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도내 의료기관들의 참여도에 달려있다.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토대로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더불어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단위학교에서 제공되는 위클래스,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위센터로 나뉘는 상담 제공은 물론 전문 진단

부고
고정우(신흥레미콘) 아버지 제주고공인권(前 한림공고 교사·향년 82세)께서 서귀 2024년 7월 9일 04시 1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4년 7월 10일(수요일)
▶발인일시: 2024년 7월 11일(목요일) 낮 12시
▶발인장소: 중앙S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금악리 선영
배우자 전선옥
아 들 고정우
딸 고명숙 사 위 이승준
수 연
※ 연락처 : 고정우 010-5915-3008

분할합병공고
2024년 7월 9일 각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동보산전(이하'갑')의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해당전력 주식회사(이하'을')와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사업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발령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외에게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갑 주식회사 동보산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22길 9, 1층 101호(월피동) 사내이사 고 진 용
을 해당전력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394, 2층 사내이사 김 정 순

상속한정승인공고
상속인: 강인숙(1963년 02월 14일생) 주소: 제주시 수목3길 9, 507호 (노형동, 세기3차아파트)
현은주(1988년 07월 07일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77, 308호 (문래동3가, 문래동대동오피스텔)
피상속인: 방 현창민(1961년 07월 06일생) 2024. 03. 27, 사망
회주주소: 제주시 수목3길 9, 507호 (노형동, 세기3차아파트)
피상속인 방 현창민은 2024. 03. 27, 사망하여 위 상속인들은 2024.07.08. 제주지방법원 2024년10452호로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인번 제103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다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 처: 현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77, 308호 (문래동3가, 문래동대동오피스텔)
3. 전화번호 : 010-3277-2695
2024년 07월 10일
공고인(한정승인자) 강인숙, 현은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3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가족모지
문중모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조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을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제1테크7호,8호 태양광발전소
■ 위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086번지 외2필지
■ 발전소의 면적: 15,823㎡
■ 발전사업의 내용
- 설 비 용 량 : 1,800kw
- 사업개시 예정일: 2025년 01월
- 사업 운영 기간: 25년
■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주)제일테크, (주)씨티퍼브이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07월 10일 ~ 2024년 07월 16일(7월29)
■ 의견제출 방법: 전화 064.721.5381, FAX 064.721.5382
E-mail: jejutomok@hanmail.net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 소유권 이전 본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이